



Original Articl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Pregnant Couples

Kim, Shin-Jeong¹⁾ · Yang, Soon-Ok¹⁾ · Jeong, Geum-Hee¹⁾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

김 신 정¹⁾ · 양 순 옥¹⁾ · 정 금 희¹⁾

1)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s and seriousness of pregnancy-related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among pregnant couples. **Method:** Subjects consisted of 77 pregnant couples at one hospital in Seoul, Korea. The pregnant couples had not been diagnosed with any medical complications.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WIN program. **Result:** In the degre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subjects, the mean score of perceived physical symptoms (2.40, 1.86) was higher than the mean score of psychological symptoms (2.13, 1.83) for both pregnant women and their spouses. In the couple's differenc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subjects, ther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hysical symptoms: "I have hemorrhoids" ($t=1.91, p=.06$), "My body weight decreased" ($t=1.78, p=.08$), "I have colds more often" ($t=1.77, p=.08$), and "I became more active than ordinary times" ($t=1.99, p=.05$) or in the

psychological symptoms: "I am more elated than ordinary times" ($t=.83, p=.41$), and "I feel inferior" ($t=1.62, p=.11$). Therefore, these symptoms are coincidental between couples. In the difference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experienced by subject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subject's physical symptoms and psychological symptoms ($r=.54, p<.001$; $r=.78, p<.001$). **Conclus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pregnant couples are an issue for nurses who perform an important role in the care of pregnant women and their spouses

Key words : Pregnant couple,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Pregnancy

투고일: 2004년 5월 6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4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hinJeong (Corresponding Auth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Okchun-dong, Chunchon, Kwangwon-do 200-702, Korea

Tel: +82-33-248-2721 Fax: +82-33-248-2734 E-mail: kimsj@hallym.ac.kr

서론

임신기간 동안 여성에게 일어나는 생리적, 정신적 변화와 관련된 임신증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보고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임신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임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포함해서는 연구가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록 현재까지 임신과 관련된 증상은 임부에게만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일컫는 용어로 해석되고 있지만 배우자 역시 임신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tle, 1975; Bogren, 1983; Clinton, 1986; Fawcett & York, 1986; Strickland, 1987; Trethowan, 1972).

아내가 임신한 동안 배우자인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인류학적 현상이 수 세기동안 알려져 왔는데(Bogren, 1983), 아내의 임신기간 동안 많은 수의 남편들이 건강에 대한 다양한 불편감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Trethowan & Colon, 1965). 이러한 현상이 임신증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의 임신기간 동안 남편이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어떤 식으로든 임신과 연관되어 있다.

Liebenberg(1969)는 처음 임신한 부부 64쌍의 임신에 대한 실제적, 정서적 적응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녀의 연구에서 배우자들은 그들의 임신에 대한 갈망을 아내가 임신한 것에 대하여 강경하게 부정하거나 임신 경험에 대하여 생물학적으로 아내와 거의 동시하여 임신 관련증상을 나타내었다(Hott, 1976). 또한 Fawcett(1978)은 그녀의 연구에서 임부의 배우자들이 자신의 아내가 경험하는 신체상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내가 임신한 남성들은 신체적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들은 임신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전체 가족에게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몇 연구를 통해 볼 때 임신경험은 여성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Gerald와 Caplan(1960)은 모든 가족이 임신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보다는 '임신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였다(Fawcett, 1978).

요즈음 대상자 간호에 있어서는 가족중심 간호가 바람직한 목표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는 임신, 분만과정 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 임신은 여성의 발달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위기이나 가족 전체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으로 인해 가족관계에도 변화가 오며 가족 구성원은 앞으로의 출산과 새로운 역할에 대한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Lee et al., 1997).

최근까지 임신은 여성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과정의 관점에서만 보아졌으며 그 배우자에 대한 영향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Strickland, 1987). 임신을 하고 있는 임부에 대하여만 강조점을 둠으로써 임신에 대한 배우자의 인식, 경험은 간과하였다(Schaffer, 1972). 그러나 배우자의 임신에 대한 느낌, 생각, 행동이나 경험 등은 임신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역시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전체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임부만이 아닌 배우자를 포함하여 임신기간 동안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이해는 가족중심 간호를 제공하는데 매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신기간 동안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부의 임신과 관련된 증상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이를 여성건강 간호 실무에 적용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와 양상을 파악한다.
-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부부간 차이를 파악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1개 대학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으며 라마즈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지지 않고 건강한 임신한 기혼부부 7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이었으며 자료수집방법은 편의 표집방법을 선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는 산전교육을 실시하는 토요일 오후에 병원의 회의실을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산전교육이 끝난 후 임신한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와 결혼상태를 확

인한 후, 임신한 부부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도 하였다. 대상자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총 100부이었으나 이 중 회수가 덜 된 14부와 응답이 불완전한 9부를 제외한 7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증상의 정도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구는 Fawcett과 York(1986)의 연구도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사전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인 증상(1차적 임신증상)과 유의하다고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문헌에서 관련증상이라고 제시된 증상(2차적 임신증상)을 포함하였다. 문항은 총 46개로서 신체적 증상에 관한 문항 34개와 정신적 증상에 관한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신체적 증상은 오심, 구토, 변비, 설사, 소화불량, 식욕의 증가, 식욕의 감소,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 요통, 두통, 복통, 치통, 잇몸의 문제, 체중의 증가 또는 감소, 부종, 피부의 문제, 피곤함, 현기증, 근육의 경련 등 34가지이며 정신적 증상은 기분의 변화, 우울, 불안정, 공포, 비관함, 집중력의 감소, 우울한 느낌, 행복감 등의 12가지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점-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임부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9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고, 도구의 타당도는 관련 간호학 교수 6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부부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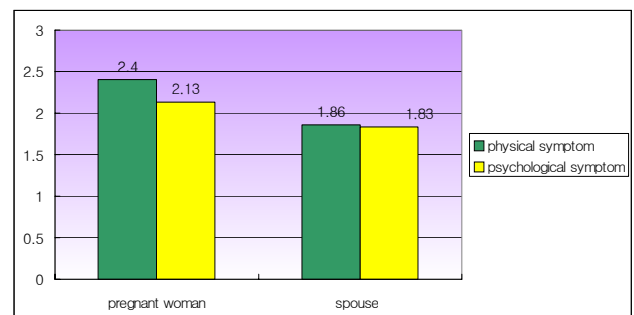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인 임신한 부부 중 임부의 연령은 25-40세의 범위로 평균 26.7세이었고 임신주수는 13- 40.2주의 범위로 평균 33.9주이었는데, 임신 1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2.6%, 임신 2기는 5.2%, 임신 3기는 92.2%를 차지하였다. 임신횟수는 1-5회의 범위로 평균 1.3회이었다. 임부의 61.0%는 직업이 없었으며 교육정도는 대부분인 94.8%가 대졸 이상이었고 5.2%만이 고졸이었다. 이번 임신이 임부가 원한 임신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0.9%로 대부분이었으며 유산경험은 31.2%가 있다고 하였는데, 전체 임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모두 1회가 14.3%, 2회가 1.3%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총 수입은 100-500만원의 범위로 평균 237.5만원이었다.

임신한 부부 중 배우자인 남성의 연령은 24-42세의 범위로 평균 31.2세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불교가 20.8%, 카톨릭이 11.7%이었고 없는 경우는 20.8%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의 직업은 97.4%가 있었으며 사무직이 50.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문직이 29.3%, 상업이 10.7%, 서비스직이 8.0%, 학생이 1.3%의 순이었다. 교육정도는 대졸 이상이 9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고졸이 3.9%, 중졸이 1.3%를 차지하였다. 이번 임신에 대해 배우자가 원한 임신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89.6%,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0.4%이었다. 자녀는 88.3%가 없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모두 1명이었다.

2.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와 양상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Figure 1>.



<Figure 1> The degree of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subjects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증상은 2.16점으로 정신적 증상의 1.98점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2.09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그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증상에서는 「체중이 증가되었다」가 2.8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피

<Table 1> The degree of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subjects (N=77 couples)

No	Item	Pregnant woman	Spouse	Total
		M(SD)	M(SD)	M(SD)
1	I feel unwell to vomit.	2.47(1.07)	1.66(.87)	2.06(.70)
2	I vomit.	2.19(1.08)	1.56(.90)	1.88(.74)
3	I have constipation.	2.21(.95)	1.60(.83)	1.90(.64)
4	I suffer from diarrhea.	1.97(.78)	1.70(.80)	1.84(.59)
5	I have hemorrhoid.	1.75(.91)	1.52(.79)	1.64(.67)
6	I have indigestion.	2.56(.75)	2.04(.94)	2.30(.55)
7	I have gases in the stomach	2.45(.80)	2.04(.98)	2.25(.65)
8	I feel an appetite.	2.53(.87)	2.16(.87)	2.34(.60)
9	I lose my appetite.	2.10(.88)	1.77(.72)	1.94(.52)
10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2.53(.70)	2.27(.85)	2.40(.55)
11	I urine more often than ordinary times.	3.42(.69)	2.14(1.01)	2.78(.60)
12	I have back pain.	2.79(.83)	1.71(.87)	2.25(.65)
13	I have headache.	2.16(.80)	1.86(.81)	2.01(.59)
14	I have stomachache.	2.14(.72)	1.71(.78)	1.93(.56)
15	I have toothache.	1.69(.75)	1.48(.64)	1.58(.53)
16	I have gum edema.	1.81(.78)	1.48(.66)	1.64(.51)
17	I have gum bleeding.	2.17(1.02)	1.60(.73)	1.88(.64)
18	My body weight increased.	3.17(.70)	2.56(1.01)	2.86(.59)
19	My body weight decreased.	1.43(.66)	1.62(.71)	1.53(.49)
20	My body feel like swollen.	2.69(.82)	2.03(.87)	2.36(.54)
21	My legs are swollen.	2.75(.78)	1.81(.89)	2.28(.62)
22	I sensitive to smelling.	2.62(.90)	2.09(.91)	2.36(.69)
23	My skin erupted.	2.21(.85)	1.87(.83)	2.04(.55)
24	I feel itchy.	2.58(.83)	2.00(.92)	2.29(.65)
25	I am gasping.	2.99(.68)	1.91(.87)	2.45(.53)
26	I feel tired.	3.09(.63)	2.55(.87)	2.82(.52)
27	I have insomnia.	2.45(.85)	1.74(.73)	2.10(.60)
28	I feel dizzy.	2.32(.75)	1.74(.73)	2.03(.53)
29	I have cramp on my legs.	2.77(.84)	1.70(.81)	2.23(.57)
30	My muscles are tremble and convulsive.	2.03(.78)	1.66(.79)	1.84(.52)
31	I feel hot than ordinary times	3.01(.80)	1.95(.89)	2.48(.57)
32	I have cold more often.	1.92(.82)	1.71(.69)	1.82(.56)
33	I became more active than ordinary times.	2.05(.51)	1.86(.64)	1.95(.39)
34	I became less active than ordinary times.	2.57(.62)	2.08(.84)	2.32(.55)
Physical symptom		2.40(.33)	1.86(.51)	2.16(.31)
35	I have severe mood change.	2.54(.77)	1.92(.76)	2.23(.59)
36	I feel well than ordinary times.	2.21(.55)	2.45(.80)	2.33(.52)
37	I am elated than ordinary times.	2.34(.58)	2.42(.75)	2.38(.53)
38	I depressed.	2.19(.74)	1.65(.70)	1.92(.55)
39	I am anxious.	2.19(.74)	1.73(.64)	1.96(.51)
40	I became nervous.	2.31(.85)	1.77(.69)	2.04(.58)
41	I can not concentrate on something.	2.19(.78)	1.81(.67)	2.00(.52)
42	I am unstable.	2.12(.78)	1.73(.66)	1.92(.52)
43	I became sensitive to sound.	2.30(.80)	1.83(.75)	2.06(.53)
44	I feel inferiority.	1.71(.60)	1.57(.57)	1.64(.44)
45	I feel fear.	1.80(.73)	1.56(.57)	1.68(.48)
46	I became pessimistic.	1.69(.65)	1.51(.62)	1.60(.51)
Psychological symptom		2.13(.45)	1.83(.47)	1.98(.33)
Total		2.33(.32)	1.85(.48)	2.09(.29)

로하다」 2.82점,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본다」가 2.78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임신의 정신적 증상에서는 「우쭈해지고 행복하다」가 2.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다」가 2.33점, 「기분의 변화가 심해졌다」가 2.23점의 순이었다.

대상자 중 임부가 경험하는 증상은 신체적 증상이 2.40점으로 정신적 증상의 2.13점 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2.33점이었다. 배우자가 경험하는 증상은 여성보다 낮았는데, 신체적 증상 역시 1.86점으로 정신적 증상의 1.83점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1.85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임부의 경우 신체적 증상에서는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본다」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체중이 증가되었다」가 3.17점, 「피로하다」가 3.09점의 순이었으며 정신적 증상에서는 「기분의 변화가 심해졌다」가 2.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우쭈해지고 행복하다」가 2.34점, 「신경 질적이 되었다」가 2.31점의 순이었다. 배우자의 경우, 신체적 증상에서는 「체중이 증가되었다」가 2.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피로하다」가 2.55점,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가 2.27점의 순이었으며 정신적 증상에서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다」가 2.4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우쭈해지고 행복하다」가 2.42점, 「기분의 변화가 심해졌다」가 1.92점의 순이었다.

3.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부부간 차이

대상자인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부부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The couple's difference of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subjects (N=77 couples)

No	Item	M(SD)	t	p
1	I feel unwell to vomit.	.81(1.35)	5.24	.000***
2	I vomit.	.64(1.31)	4.27	.000***
3	I have constipation.	.61(1.24)	4.33	.000***
4	I suffer from diarrhea.	.27(1.03)	2.31	.02*
5	I have hemorrhoid.	.23(1.07)	1.91	.06
6	I have indigestion.	.52(1.29)	3.52	.001**
7	I have gases in the stomach	.42(1.24)	2.94	.004**
8	I feel an appetite.	.38(1.26)	2.63	.01*
9	I lose my appetite.	.34(1.23)	2.41	.02*
10	I would like to eat something	.26(1.11)	2.06	.04*
11	I urine more often than ordinary times.	1.27(1.24)	8.99	.000***
12	I have back pain.	1.08(1.11)	8.53	.000***
13	I have headache.	.30(1.08)	2.43	.02*
14	I have stomachache.	.43(.99)	3.79	.000***
15	I have toothache.	.21(.89)	2.04	.05*
16	I have gum edema.	.32(1.08)	2.80	.007**
17	I have gum bleeding.	.57(1.22)	4.12	.000***
18	My body weight increased.	.61(1.26)	4.26	.000***
19	My body weight decreased.	-.19(.96)	1.78	.08
20	My body feel like swollen.	.66(1.30)	4.46	.000***
21	My legs are swollen.	.95(1.12)	7.41	.000***
22	I sensitive to smelling.	.53(1.17)	4.01	.000***
23	My skin erupted.	.34(1.26)	2.35	.02*
24	I feel itchy.	.58(1.17)	4.37	.000***
25	I am gasping.	1.06(1.14)	8.20	.000***
26	I feel tired.	.55(1.11)	4.33	.000***
27	I have insomnia.	.71(1.06)	5.90	.000***
28	I feel dizzy.	.58(1.04)	4.92	.000***
29	I have cramp on my legs.	1.06(1.18)	7.89	.000***
30	My muscles are tremble and convulsive.	.36(1.17)	2.73	.008**
31	I feel hot than ordinary times	1.06(1.25)	7.48	.000***
32	I have cold more often.	.21(1.03)	1.77	.08
33	I became more active than ordinary times.	.19(.86)	1.99	.05
34	I became less active than ordinary times.	.49(.97)	4.47	.000***
Physical symptom		.54(.61)	7.80	.000***

<Table 2> continued

(N=77 couples)

No	Item	M(SD)	t	p
35	I have severe mood change.	.62(.96)	5.70	.000***
36	I feel well than ordinary times.	-.25(.91)	2.39	.02*
37	I am elated than ordinary times.	-.08(.82)	0.83	.41
38	I depressed.	.55(.94)	5.09	.000***
39	I am anxious.	.46(.95)	4.30	.000***
40	I became nervous.	.55(1.01)	4.75	.000***
41	I can not concentrate on something.	.39(1.01)	3.37	.000***
42	I am unstable.	.39(1.00)	3.41	.001**
43	I became sensitive to sound.	.47(1.12)	3.67	.000***
44	I feel inferiority.	.14(.77)	1.62	.11
45	I feel fear.	.25(.89)	2.43	.02*
46	I became pessimistic.	.18(.76)	2.11	.04*
Psychological symptom		.31(.63)	4.30	.000***
Total		.48(.57)	7.39	.000***

* p<.05 ** p<.01 *** p<.001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부부간 차이에서는 신체적 증상(t=5.67, p<.001)과 정신적 증상(t=4.30, p<.001), 전체적(t=7.35, p<.001)으로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증상의 4개 문항과 정신적 증상의 2개 문항은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증상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신체적, 정신적 증상은 모두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신체적 증상의 「치질이 있다」(t=1.91, p=.06), 「체중이 감소되었다」(t=1.78, p=.08), 「감기에 자주 걸린다」(t=1.77, p=.08),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 되었다」(t=1.99, p=.05)와 정신적 증상의 「우쭐해지고 행복하다」(t=.83, p=.41), 「열등감이 느껴진다」(t=1.62, p=.11)의 문항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부간 증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차이는 임부의 연령(t=-1.74, p=.09; t=-1.80, p=.08), 배우자 연령(t=-.07, p=.95; t=-.23, p=.82), 종교 유무(t=-1.18, p=.24; t=-1.35, p=.18), 임부의 직업 유무(t=.10, p=.92; t=-.16, p=.87), 배우자의 직종(F=1.88, p=.12; F=.93,

<Table 3> Differences of physical, psychological symptoms of pregnancy experienced by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7 couple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o	Physical symptom			Psychological symptom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woman)	≤ 28	39	.43(.47)			.18(.62)		
	≥ 29	38	.66(.71)	-1.74	.09	.43(.61)	-1.80	.08
Age (spouse)	≤ 30	38	.54(.55)			.29(.67)		
	≥ 31	39	.55(.67)	-.07	.95	.32(.59)	-.23	.82
Religion	Have	54	.49(.59)			.24(.59)		
	None	23	.67(.64)	-1.18	.24	.45(.69)	-1.35	.18
Job (woman)	Have	30	.55(.54)			.29(.59)		
	None	47	.54(.66)	.10	.92	.32(.65)	-.16	.87
Type of occupation (spouse)	Businessman	8	.43(.75)			.32(.55)		
	Desk maker	38	.38(.57)			.21(.63)		
	Professional	22	.80(.56)	1.88	.12	.52(.61)	.93	.45
	Service	6	.57(.58)			.13(.84)		
	Student	1	.21			.17		
Education level (woman)	≤ high school	4	.15(.37)			.17(.54)		
	≥ university	73	.56(.61)	-1.31	.19	.31(.63)	-.46	.65

<Table 3> continued

(N=77 couple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o	Physical symptom			Psychological symptom		
			M(SD)	t or F	p	M(SD)	t or F	p
Education level (spouse)	≤ high school	4	.74(.74)	.67	.50	.50(.83)	.63	.53
	≥ university	73	.53(.61)			.30(.62)		
Planned preg (woman)	Yes	70	.55(.63)	.38	.71	.32(.62)	.46	.65
	No	7	.46(.39)			.20(.68)		
Planned preg (spouse)	Yes	69	.54(.61)	-.26	.80	.31(.63)	.02	.98
	No	8	.60(.68)			.30(.62)		
Pregnant period	1st	2	.81(.35)	.26	.77	.88(.29)	1.19	.31
	2nd	4	.65(.62)			.04(.65)		
	3rd	71	.53(.62)			.31(.63)		
Number of pregnancy	1st time	51	.55(.57)	.06	.95	.25(.65)	-1.17	.25
	≥ 2nd times	26	.54(.70)			.42(.57)		
Experience of abortion	Have	24	.58(.69)	.35	.73	.50(.39)	1.86	.07
	None	53	.54(.58)			.22(.65)		
Child	Have	9	.54(.76)	-.02	.99	.37(.39)	.33	.75
	None	68	.54(.59)			.29(.65)		
Family income (million)	< 200	26	.58(.64)	.43	.65	.19(.61)	.86	.43
	200- > 300	28	.46(.63)			.31(.73)		
	≥ 300	23	.60(.56)			.43(.49)		

p=.45), 임부의 교육정도($t=-1.31, p=.19; t=-.46, p=.65$), 배우자의 교육정도($t=.67, p=.50; t=.63, p=.53$), 임부가 원하는 임신인지의 여부($t=.38, p=.71; t=.46, p=.65$), 배우자가 원하는 임신인지의 여부($t=-.26, p=.80; t=.02, p=.98$), 임신기간($F=.26, p=.77; F=1.19, p=.31$), 임신횟수($t=.06, p=.95; t=-1.17, p=.25$), 유산경험 유무($t=.35, p=.73; t=1.86, p=.07$), 자녀 유무($t=-.02, p=.99; t=.33, p=.75$), 가족의 총수입($F=.43, p=.65; F=.86, p=.4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간의 관계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간의 관계에서는 임부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배우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임부가 경험하는 정신적 증상도 배우자의 신체적 증상이나 정신

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임부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임부가 경험하는 정신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54, p<.001$)과, 배우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도 배우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증상($r=.78,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간의 관계에서는 임부나 배우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각각 정신적 증상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인 임신한 부부에서, 임부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는 배우자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Antle (1975)도 임부의 배우자에게는 눈에 떨 만한 신체적 변화는 없으며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바라는 남성은 드물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과 정신적 증상의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신체적 증상의 정도가 정신적 증상의 정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couples

(N=77 couples)

		Woman		Spouse
		Physical symptom	Psychological symptom	Physical symptom
Woman	Psychological symptom	$r=.54, p=.000***$		
Spouse	Physical symptom	$r=.01, p=.97$	$r=.05, p=.70$	
	Psychological symptom	$r=.05, p=.65$	$r=.06, p=.60$	$r=.78, p=.000***$

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그 양상에 있어서는 신체적 증상으로 임부의 경우에는 배뇨횟수의 증가, 체중 증가, 피로가 배우자의 경우에는 체중 증가, 피로, 식욕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증상으로 임부는 기분의 변화, 행복감, 신경질적이 됨, 배우자는 기분의 좋음, 행복감, 기분 변화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Fawcett와 York(1987)의 연구에서는 임신 초기에는 신체적 증상으로 피곤, 배뇨횟수의 증가, 활동 감소, 식욕 증가를 경험했으며 정신적 증상으로는 불안과 우울한 느낌,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배우자에게 나타난 가장 흔한 신체적 증상은 식욕의 증가이었으며 정신적 증상으로는 평상시보다 기분이 좋다는 것이었는데, 피곤함과 배뇨횟수의 증가도 나타났다. 이는 임신 후기로 가면서 신체적 증상으로 특정 음식에 대한 선호와 정신적으로는 이전보다 기분이 좋아짐의 증상을 가장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배우자의 행복감은 남성으로서 생식에 성공한 것에 자부심을 경험하며 아내의 태동 등은 실제 태아가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여지게 되어 최고의 경험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Lipkin과 Lamb(1982)는 임신기간 동안과 산욕기간 동안 많은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이는 활동량 증가, 이전보다 기분이 좋아짐이었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분명한데, 그 중 하나는 임신한 배우자로서의 정체감과 임신에 대한 남성의 참여의 표현이라는 것이다(Colman & Colman, 1971; Trethowan & Conlon, 1965).

예를 들면 뉴기니의 남성은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입덧으로 고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아프리카의 가나에서는 임신 첫 달에 배우자는 그의 몸 안에서 태아가 자라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극심한 갈증을 겪는다고 믿어져 왔다. 서구 사회에서도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많은 수의 배우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Monroe & Monroe, 1971). Clinton(1985)도 미국을 포함한 많은 산업사회에서 이러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내의 임신은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배우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임신한 아내에 대한 참여의 신호로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부부간 차이에서는 신체적 증상의 「치질이 있다」, 「체중이 감소되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 되었다」 4개 문항과 정신적 증상의 「우울해지고 행복하다」, 「열등감이 느껴진다」의 2개 문항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부간 증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Drake와 Verhulst(1988)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에 일치를 보인 항목은 신체적 증상에 있어서는 식욕증가, 요통이었으며 정신적 증상에서는 우울감이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임부와 배우

자간에 신체적, 증신적 증상은 적은 수의 일치성을 보였지만, 이 일치성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서 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임부의 경우 29세 이상에서 28세 이하보다, 배우자는 31세 이상이 30세 이하보다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종교는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직의 경우가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Strickland(1987)는 배우자의 직업이 노동계층에서 중산층보다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하면서, 사회 경제적 계급이 높은 집단에서는 좀 더 심리학적으로 감춰진 형태나 방어적인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 May(1980)는 정서적으로 아내의 임신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경우가 덜 관여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증상의 발현을 보인다고 하였다(Bogren, 1983). 그러므로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요구되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우자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Lamb와 Lipkin(1982)의 연구에서도 교육정도가 낮은 남성이 더 증상을 많이 나타내었다.

배우자가 원한 임신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은 경우가 신체적 증상의 정도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정신적 증상의 정도는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Strickland(1987)의 연구에서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배우자에게서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가 더 많은 증상을 가졌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Monroe와 Monroe(1971)는 증상을 나타내는 배우자는 이후에 양육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신기간에 따라서는 신체적 증상은 임신 1기, 2기, 3기의 순이었고, 정신적 증상은 임신 1기, 3기, 2기의 순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는데 Clinton(1986)은 임신 2기, 3기, 1기의 순으로 임신의 증상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수입은 임신 증상과 정반대의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가족의 총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간의 관계에서는 임부와 배우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만 각각 경험하는 정신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임부나 배우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각각 정신적 증상의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Bogren(1983)도 임부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과 남성이 경험하는 증상과는 별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배우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의 발현은 오히려 배우자의 임신에 대한 불안 같은 정신적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이들이 임신기간동안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가 별로 없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의 선행연구와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는 문화적 차이나 대상자의 편중 등 다른 요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Drake와 Verhulst(1988)은 임부와 배우자가 경험하는 증상에 대해 비교를 한 연구는 드물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Howells(1971)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배우자를 만날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많은 연구들이 임부의 보고, 지각 등의 방법으로 배우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임신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임부에게만 강조점을 두으로써 임신에 대한 배우자의 측면은 간과하였으며 (Schaffer, 1972) 건강 전문인들도 배우자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인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간호사는 임신한 부부의 경험에 대한 신 지식(new knowledge)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고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가족적 간호를 제공할 때 임신이라는 정상적인 발달상의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의 문제를 잘 도와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신기간동안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부부의 임신증상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이를 여성 건강간호 실무에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자료수집은 서울의 1개 대학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으며 라마즈 교실에 참여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가지지 않은 건강한 기혼부부 77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Fawcett과 York(1986)의 연구도구를 참고로 하여 신체적 증상에 관한 문항 34개와 정신적 증상에 관한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46개 문항의 임신증상의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증상은 부부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이 2.16점으로 정신적 증상의 1.98점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2.09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임부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증상은 2.40점으로 정신적 증상의 2.13점 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2.33점이었고 배우자가 경험하는 임신 관련 증상의 정도는 임부보다 낮았는데, 신체적 증상 역시 1.86점으로 정신적 증상의 1.83점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는 1.85점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부부간 차이에서는 신체적 증상($t=5.67, p<.001$)과 정신적 증상($t=4.3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차이는 임부의 연령, 배우자 연령, 종교 유무, 임부의 직업 유무, 배우자의 직종, 임부의 교육정도, 배우자의 교육정도, 임부가 원하는 임신인지의 여부, 배우자가 원하는 임신인지의 여부, 임신기간, 임신횟수, 유산경험 유무, 자녀 유무, 가족의 총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간의 관계에서는 임부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과 배우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만 각각 경험하는 정신적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54, p<.001$; $r=.78, p<.001$).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 자체를 좋다, 나쁘다고 판단 할 수는 없으나, 간호사가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지지를 더 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임신한 부부가 경험하는 임신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임신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일련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References

- Antle, K. (1975). Psychologic involvement in pregnancy by expectant fathers, *JOGNN*, 4, 40-42.
- Bogren, L. Y. (1983). Couvade, *Acta Psychiatr Scand*, 68, 55-65.
- Clinton, J. (1985). Couvade: patterns, predictors and nursing management: A research proposal submitted to the division of nursing, *West J Nurs Res*, 7(2), 221-243.
- Clinton, J. (1986). Expectant fathers at risk for couvade, *Nurs*

- Res*, 35(5), 290-295.
- Colman, A., & Colman, L. (1971). *Pregnancy: The psychological experience*. New York, Herder and Herder.
- Drake, M. L., & Verhulst, F. J. (1988).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experienced by Canadian women and their husbands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J Adv Nurs*, 13, 436-440.
- Fawcett, J. (1978). Body image and the pregnant couple, *MCN*, 3(4), 227-233.
- Fawcett, J., & York, R. (1986). Spous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Nurs Res*, 35(3), 144-148.
- Fawcett, J., & York, R. (1987). Spouses' strength of identification and reports of symptoms during pregnancy and the postpartum, *Florida Nurs Rev*, 2(2), 1-10.
- Gerald, & Caplan. (1960). *Emotional implications of pregnancy and influences on family relationship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tt, J. R. (1976). The crisis of expectant fatherhood, *Am J Nurs*, 76(9), 1436-1440.
- Howells, J. G. (1971). *Fathering*. New York: Brunner & Mazel.
- Lamb, G. S., & Lipkin, M. (1982). Somatic symptoms of expectant fathers, *MCN*, 7(2), 110-115.
- Lee, K. H., Park, Y. J., Byun, S. J., Yoo, E. K., Lee, M. L., Lee, Y. S., Lee, H. K., Jeong, E. S., Cho, O. S., Choi, E. S., & Han, H. S. (1997). *Women's Health Nursing*. Seoul: Hyun Moon Sa.
- Liebenberg, B. (1969). Expectant fathers, *Child Fam*, 8, 265-278.
- Lipkin, M., & Lamb, G. S. (1982). The couvade syndrome: An epidemiologic study, *Ann Intern Med*, 96(4), 509-511.
- May, K. A. (1980). A typology of detachment/ involvement styles adopted during pregnancy by first time expectant fathers, *West J Nurs Res*, 2(2), 446-461.
- Monroe, R. L., & Monroe, R. H. (1971). Male pregnancy symptoms and cross-sex identity in three societies, *J Soc Psychol*, 84, 11-25.
- Schaffer, G. (1972). *The expectant father*, New York: Barnes and Noble.
- Strickland, O. L. (1987). The occurrence of symptoms in expectant fathers, *Nurs Res*, 36(3), 184-189.
- Trenthowan, W. H. (1972). *The couvade syndrome*, In *modern Perspectives in Psycho-Obstetrics*, New York: Howells ed.
- Trethowan, W. H., & Conlon, M. F. (1965). The couvade syndrome, *J Psychiatry*, 3, 57-66.